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9.23.(수)

한-탄자니아, 공공조달 디지털 전환 협력 나선다

- 조달청, 탄자니아 공공조달규제청과 업무협약 체결... 협력 지평 아프리카로 확대
- 나라장터 운영 경험 공유, 혁신제품 실증·조달기업 참여 확대 등 협력

조달청이 탄자니아와 전자조달과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9월 23일 탄자니아 공공조달규제청(PPRA*)의 데니스 심바(Mr. Dennis K. Simba) 청장과 공공조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 (공공조달규제청) : 공공조달을 규제·감독하는 재무부 산하 규제기관으로, 조달법 준수 여부 감사와 전자조달시스템(NeST) 운영을 담당

탄자니아 공공조달규제청은 탄자니아 공공기관의 조달을 감독하는 재무부 산하 규제기관으로, 2023년 조달법 전면 개정 이후 탄자니아 전자조달시스템(NeST*)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National e-Procurement System of Tanzania

이번 MOU는 지난해 9월 심바 청장을 단장으로 한 탄자니아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비롯해 혁신조달과 녹색조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조달, 혁신조달, 지속가능조달 분야의 정책 경험과 제도·지침을 상호 공유하고, 공동 워크숍과 포럼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교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제품 실증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달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자조달 운영 경험과 녹색조달 성과관리 체계를 공유하는 한편, 탄자니아가 예산·결제·금융 시스템과 전자조달을 연계 운영 중인 사례 등도 함께 살펴보며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탄자니아와 처음으로 맺는 이번 MOU는 우리 공공조달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전자조달과 혁신조달, 지속가능조달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공공조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혜경	(042-724-7554)
		담당자	사무관	신봉기	(042-724-7470)

